

광주 3·1운동 참가자 48명 새로 찾았다

정재상 국사편찬위원회 재판 기록 발굴 국기기록원서, 유공자 인정 중요 자료

3·1독립운동 90주년을 앞두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광주·전남지역 참가자들의 판결문이 한 항토사학자에 의해 공개돼 이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인 정재상(43) 경남 하동 향일독립투쟁사연구소장은 24일 "대전 국가기록원에서 광주 3·1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른 항일운동가 48명의 판결문을 찾았다"고 밝혔다.

정 소장이 찾아낸 판결문에는 이들 48명이 광주 장남인 1919년 3월 10일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켜 일본 경찰에 체포됐고, 광주지방법원과 대구 복심법원(현재의 고등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4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뒤 석방된 내용 등이 적혀 있다.

광주농업학교 학생 김정수(당시 21세·나주군 평등면 연산리)씨는 동료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 독립만세를 주동하다 체포돼 참가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고 기록돼 있다.

또 나주의 김성민씨, 장흥의 김정수씨, 담양의 최경애씨, 광주의 장남규·유계문씨, 화순의 주장암씨 등은 광주농업학교와 송일학교, 수피아여학교 학생으로 3·1운동에 적극 가담했다가 체포돼 징역 6월~10월을 선고받았다.

참가자들 가운데는 이들 3개 학교



광주 3·1 독립만세운동 참가자 48명에 대한 판결문 일부. 징역형을 선고한 주문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제중원(현재 기독교병원) 간호사, 신발가게 주인, 안마사, 농업인, 무직자도 10여명이 포함돼 당시 만세운동에 계층 구분 없이 폭넓게 참여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 판결문에는 광주지역 3·1 독립운동 전개 과정이 담겨져 있어 지역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보인다.

특히 정부는 3·1 독립운동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른 이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포상하고 있어 재판기록 공개를 계기로 이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광주 3·1운동은 1919년 3월 10일 오후 3시에 광주 부동교(광주 남구 사동) 아래 작은 장터에서 송일학교, 수피아여학교, 농업학교 교사들의 주도로 학생, 주민 1천500여명이 모여 펼친 독립만세운동으로 주동자와 가담자 대부분이 체포됐다.

정 소장은 "후손이나 유족이 있다면 포상 신청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개나리·진달래 봄꽃 빨리 핀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올 봄에는 다소 빨리 꽃망울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광주의 평균기온은 5.5도로 평년보다 4도 가량 높았고 다음달에도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7~13일 가량 빠를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개나리는 광주에서 3월 13일, 여수에서는 15일 각각 개화할 전망이다. 진달래는 광주에서 20일, 여수에서는 15일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진달래와 개나리의 만개 시기는 개화로부터 1주일일이 지난 날로 예상했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7분 해질 18시 24분 달돋이 06시 58분 달질 18시 41분

바람 부는 날 오전에 비가 온 뒤 점차 개겠다.

구분	기온	강수량
광주	비온뒤 맑음 6/12°C	
목포	비온뒤 맑음 7/9°C	
여수	비온뒤 맑음 7/11°C	
완도	비온뒤 맑음 8/11°C	
구례	비온뒤 맑음 6/13°C	
해남	비온뒤 맑음 8/12°C	
장흥	비온뒤 맑음 6/12°C	
고흥	비온뒤 맑음 7/13°C	
순천	비온뒤 맑음 4/9°C	
영광	비온뒤 맑음 8/12°C	
진도	비온뒤 맑음 4/10°C	
전주	비온뒤 맑음 5/12°C	
남원	비온뒤 맑음 5/7°C	
옥산도	비온뒤 맑음 5/7°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5m	목포 02:13	07:38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5m	여수 09:33	03:06
	북~북동풍	1.0~2.5m	21:40	15:33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목)	27(금)	28(토)	3/1(일)	2(월)	3(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11	2/8	1/10	0/11	-1/10	1/9



"U대회 광주에서" 24일 광주 남구 문예회관에서 열린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 기원 남구 범시민 지원단 발대식' 참가자들이 U대회 유치를 기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황일봉 남구청장,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남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없앤다

전국 최초...자동계량 전산화시스템 도입

광주시 남구가 전국 최초로 쓰레기 배출과 수거에 자동계량 전산화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없애고 바코드가 부착된 스티커를 배부해 재활용쓰레기의 경우 버리는 만큼 포인트를 적립,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남구가 마련한 쓰레기 종량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쓰레기 종량제봉

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종량제 봉투는 제작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추가로 봉투가 필요해 쓰레기 발생량을 되려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구는 종량제 봉투를 없애는 대신 일반 봉투에 붙일 수 있는 바코드 스티커와 카드를 배부하고, 쓰레기 배출 과정에 자동계량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산화된 스티커와 카드는 쓰레기 배출비용을 부과해서 무게로 전환한 것으로 쓰레기 배출할 때에 설치된 자동장치에 배출 내역이 입력된다.

이 경우 재활용 쓰레기는 배출량이 카드에 포인트로 적립되고 일반 쓰레기는 비용으로 누적, 수수료가 자동 정산돼 이전 보다 수수료가 낮게 부과된다는 게 남구의 설명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나친 측근 챙기기” 뒷말 무성

광주시교육청 인사 싸고 교육계 논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3일 단행한 초·중등 교장과 교감, 교육전문직 인사를 놓고 지나친 측근 챙기기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 교육계와 일선학교장들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중요 과장에 보임된 P씨와 C씨는 초임교감으로 발령난지 각각 1년만에 다시 본청에 복귀한 것으로, 관행과 형평을 무시했다는 인사평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안순일 교육감의 최 측근으로 알려진 데다 한명은 교육감과 고교 등문이다.

또 교장직에는 일선 학교에서 교감 경험을 갖춘 인사를 발령하

는 게 원칙이지만 교감경력이 없는 본청 K과장이 신설고교 교장으로 배치된 것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K과장도 안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안 교육감은 평소 “본청 국장은 과장 경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인사에서 본청 과장 경력이 없는 N씨를 핵심인 교육국장으로 임명한 것도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임기만료된 광주 동부교육장을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한 것도 의외라는 평이다. 동부교육장 L씨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육

장 임기후 산하기관장이나 규모 있는 고교의 교장으로 발령되던 통례와는 달리 모 중학교 교장에 보임됐다.

L교육장 자신은 “인근 학교와 통합되는 중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주변에선 차기 교육감 출마설이 나올던 L씨에 대한 '현재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고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단 중심의 행정기반 구축과 변화와 혁신을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본인 희망과 근무기간, 학교 경영 실적, 정년 잔여기간 등을 두루 고려해 적격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일부 중학교 운동부 시험 안봐

성취도 조작 파문 확산

학업성취도 조작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일부 중학교 운동부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 교육청이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성취도 평가 시험에서 관내 C중 3학년 야구부원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에 같은 야구부를 운영중인 M중 학생들은 시험을 치렀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원에 대한 교과부의 시험 지침이 없는 탓에 일선 학교에서 평소처럼 시험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동부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는데도 이 결과를 누락했다면 심각한 문제지만, 응시 자체도 없고 결과에도 포함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중·고교에서 측구와 야구, 검도, 태권도 등 운동부원 가운데 이번 시험 응시 대상자인 중 3과 고 1선수는 350명 안팎으로 추산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광학원 채용 비리 의혹 감사 착수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정광학원 학내 교사 채용 비리 의혹(본보 24일자 6면)과 관련,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시 교육청은 24일 “정광학원 이사가 장이 전자문서 등을 통해 학내 채용 비리를 고발함에 따라 조만간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날 합격자 가운데 학사경고 누적자와 학교운영위원